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무희(舞姬)』 고찰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尹 星 淑

2011 年 12月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1952
제주대학교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무희(舞姬)』 고찰

-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尹星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 年 12月

尹星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1 年 12月

<국문초록>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무희(舞姬)』 고찰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을 중심으로-

尹星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成 俸

본 논문은 모리 오가이의 문단 데뷔작인 『무희』를 주인공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오가이는 선조 대대로 전의에 종사하였던 모리가(森家)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가정교육과 입신출세의 가치관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군의로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으며, 일생을 육군 군의관직에 임하면서도 평론가·번역가·소설가·시인 등 문학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무희』는 근대 일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메이지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도요타로와 독일소녀 엘리스의 사랑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오가이의 독일유학 체험과 엘리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가이는 군의로서 독일에 유학하면서, 서양의 많은 문학서들을 탐독하고, 예술 문화를 향유하면서 선진 유럽의 근대 사상을 섭취하였으며, 이는 그의 문학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가이를 따라 『무희』의 실제 모델, 엘리스로 일컬어지는 독일 여성이 일본으로 건너온 엘리제 사건이 발생하고, 오가이는 이 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무희』의 두 주인공 도요타로와 엘리스는 사랑의 태도에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도요타로의 엘리스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불우한 상황을 동정하는 연민의 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랑의 감정이 ‘사랑’ 그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표출되어 왔다. 즉 도요타로는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의 자

각도 없이 비정하게 엘리스를 버리고 일본으로 귀국해 버리는 윤리부재(倫理不在)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엘리스의 도요타로에 대한 사랑은 열정적이며 헌신적으로 모성애적인 사랑을 하였다. 즉, 그녀의 사랑에는 진실성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대한 책임감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고, 『무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본론	4
1.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삶과 문학	4
2. 『무희(舞姫)』의 창작배경	8
1) 독일유학체험	8
2) 엘리제 사건	11
3.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	13
1) 연민의 정	13
2) 외부적인 요인	16
3) 자아 각성	19
4) 모성애	31
III.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I. 서론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1922, 이하 오가이라 함)는 일본의 메이지·다이쇼 시대에 걸쳐 소설가, 희곡가, 평론가, 번역가로서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일본근대문학의 기초를 다성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집안은 대대로 전의(典醫)를 담당해왔으며, 그 또한 동경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군 의학교 교장, 군의총감, 의무국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군의(軍醫)로서 4년간 독일에 유학하며, 의학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사회, 문화, 사상, 철학, 문학, 미술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양을 쌓았다. 특히 4년간의 독일체험으로 탄생한 것이 독일유학의 선물이라 일컬어지는 『무희(舞姬)』(1890.1)·『덧없는 이야기(うたかたの記)』(1890.8)·『과발꾼(文づかひ)』(1891.1)의 독일 삼부작이다. 그 중 『무희』는 1890년 1월 「국민의 벗(國民之友)」¹⁾ 제 6권 69호 부록에 발표되었던 그의 문단 처녀작으로,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²⁾의 『뜬구름(浮雲)』과 함께 일본근대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일본의 언문일치운동 과도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일한혼용체(和漢混淆體)의 아문체(雅文体)로 독일유학에서의 근대적인 자아각성을 묘사하고 있어, 이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학적 측면은 물론 어학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오가이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현재까지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오타 도요타로(太田豊太郎:이하 도요타로라 함)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중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도요타로는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로 떠나 근대적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며, 무용수인 엘리스(エリス)와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면직까지 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정과 국가에 얽매어 수동적인 삶을 살아 온 자신에 대한 심한

1) 1887년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창간한 민우사(民友社)의 기관지. 평민주의를 호소한 당시 최고의 진보적 평론지로, 종합잡지의 선구가 되었다.

2)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1864~1909)는, 일본의 소설가, 번역가로 본명은 하세가와 다쓰노스케(長谷川辰之助)였다. 언문일치체와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뜬구름(浮雲)』을 발표하였고, 투르게네프의 『밀회(あひさき)』, 『해후(めぐりあひ)』를 번역하는 등 근대 일본문학의 선구가 되었다.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틀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광인이 된 엘리스를 독일에 남겨두고 귀국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작가 오가이 또한 주인공 도요타로와 같이 독일 유학을 경험하였고, 귀국 후에 실제로 엘리제라는 이름을 가진 독일 여성이 그의 뒤를 따라 일본으로 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작품은 작가 오가이의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는 「모리 오가이의 로맨티시즘(森鷗外のロマンチズム), 1949)」에서 『무희(舞姫)』의 테마를 “봉건인이 근대인이 되는 정신변혁사로, 청년 오가이의 당시의 내면적 자화상”³⁾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케모리 덴유(竹盛天雄)는 「모리오가이 『무희』-모티브와 형상(森鷗外『舞姫』-モチーフと形像), 1987)」에서 “오가이의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서 작중 인물에 실제 인물을 투영시키고 있다”⁴⁾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권태민은 「森鷗外の『舞姫』고찰」(1997)에서 “연인 엘리제에 대한 ‘한(恨)’이 담긴 자전적인 성격의 소설이며 당시의 메이지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을 엿볼 수 있는 작품”⁵⁾이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이기섭은 「森鷗外のドイツ留学について」(1997)에서 “독일 삼부작은 귀국 직후에 발표된 작품으로 독일 유학의 경험과 전문이 유사한 형태로서 이 일련의 작품들에 투영되고 있으며, 특히 『무희』에는 근대적 정신을 자각한 한 지식인의 내면적 고뇌가 그려져 있어 일본 근대문학 성립에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⁶⁾고 언급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희』에 대한 연구는 작가 오가이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적 자아 각성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 작품은 일본 낭만주의의 첫 작품으로, 청춘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작품의 주인공인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佐藤春夫, 「森鷗外のロマンチズム」, 『森鷗外研究』 筑摩書房, 1958, pp.32~33.

4) 竹盛天雄, 「森鷗外『舞姫』-モチーフと形像-」 『日本文学研究資料新集13』, 有精堂, 1991, p.132.

5) 권태민, 「森鷗外の『舞姫』고찰」, 『일본문화학보』 제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1997, p.286.

6) 이기섭, 「森鷗外のドイツ留学について」, 『日本語文学』 제3집, 일본어문화회, 1997, p.86.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무회』에 나타난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두 사람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 순서로서는 우선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작가 오가이의 성장 과정과 문학 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작품 『무회』의 탄생배경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이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인공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의 행방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일본어 텍스트로는 『森鷗外全集1』(筑摩書房、1980)을 사용했으며, 인용된 한국어 번역은 『무회』(오가이 지음, 손순옥 옮김, 시사일본어사, 1993)을 참조하였다.

II. 본론

1.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삶과 문학

『무희(舞姬)』의 작가 오가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군인과 문인으로서는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그는 평생 그 두 개의 직업을 병행하며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의 그런 삶의 체험들은 작품으로 표출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오가이의 삶과 문학이 그만큼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오가이의 삶과 문학을 그의 생애와 문예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가이는 1862년(文久2년) 2월 17일에 지금의 시마네현(島根県) 쓰와노(津和野)에서 아버지 시즈오(静男)와 어머니 미네코(峰子)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모리린타로(森林太郎)이다. 그의 집안은 선조 대대로 번주(藩主) 가메이(亀井) 집안을 모시는 전의(典醫)였다.

그가 태어날 당시는 봉건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에 따라 조상 대대로 계승한 의업(醫業)을 이어나가야 했다. 따라서 그는 모리가의 장남으로서 명치유신(明治維新) 후의 가문의 재흥을 위해,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오가이는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한문을 배우러 다녔고 여섯 살이 되는 해에 요로관(養老館)이라는 번교(藩校)에 입학하여, 사서(四書), 오경(五經), 국어(國語),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의 유학을 바탕으로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의학공부를 위해 필요한 네덜란드어 문법을 배우는 등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수재였다고 한다.⁷⁾

오가이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어머니 미네코였다. 그녀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한학을 배우면서 엄격하게 자식의 공부를 감독했다. 어느 날, 어린

7)磯貝英夫, 『鑑賞 日本現代文学 第1卷 森鷗外』, 角川書店, 1981, p.8.

오가이가 번교에서 성적이 좋아 상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어머니는 오가이가 자만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고 한다.

浜の真砂の数多いなかで真玉と人に選ばれるやうに今から心掛けて貰ひたいと思ひます。やかでお父様と御一緒に東京へよって諸国の人の中でまじって勝れた人となって、家の名もお国の名も揚げるやうにしてください。8)

물가의 많은 모래 속에서 찾아낸 진주처럼 선택되어진 사람같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동경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섞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가문의 이름과 고향의 이름도 떨치도록 해 주세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최고가 되어 가문의 이름, 고향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는 입신출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오가이는, 어머니의 기대와 노력에 어긋나지 않고, 번교(藩校)에서 성적이 으뜸일 정도로 뛰어났다.

그의 나이 열한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동경으로 상경한 오가이는 친척인 니시 아마네(西周)⁹⁾의 집에 기거하면서, 대학 예비학교인 진문학사(進文学舎)에 입학하여, 의학수업을 전제로 하여 독일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1874년, 그의 나이 13세에 동경 의학교¹⁰⁾ 예과에 입학하였다. 입학 당시 나이가 입학 규정상의 연령보다 두 살이나 어려서 두 살을 올려 입학하였기 때문에 최연소 학생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학공부를 하여 학과 점수가 우수하였으며, 기숙사에서는 기숙사에 출입하는 책장수에게 책을 많이 빌려 닦치는 대로 읽었다. 13,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 고전소설을 애독하였고, 또 영웅 위인들의 역사나 전기, 한시 등을 즐겨 읽었다. 학생시절 오가이의 독서 경향은 로맨틱한 연애소설에서 위인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였으며, 나중에는 책대여 장수가 소장하고 있는 소설이란 소설은 전부 읽었으며 수필까지 닦치는 대로 읽었다고 한다.¹¹⁾

19살 최연소의 나이로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그는 문부성의 국비 유학을

8) 小金井喜美子, 『森鷗外の系族』, 大岡山書店, 1943, p.24.

9) 西周(니시 아마네 1829~ 189): 에도 시대 후기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일본의 계몽가, 교육자로, 일본 최초로 네덜란드에 유학하였다.

10) 1877년 동경개성학교와 합병하여 지금의 동경대학이 된다.

11) 이기섭, 『모리오가이의 삶과 문학』, 시간의 물레, 2008, pp.31~33.

희망하였지만, 졸업성적이 3등 이내에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후 반 년 정도 부친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도와 환자를 돌보다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육군에 들어가 군의부관이 되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서 1884년에 육군 위생제도조사 및 선진 위생학 연구를 위해 그토록 희망하던 독일 유학을 정식으로 명령받는다. 4년간의 독일 유학으로 그는 의학, 위생학 연구는 물론, 서양의 문학과 사상, 문화 등을 폭넓게 수용하였으며, 이후 그의 삶과 문학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1888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오가이는 육군 군의(軍醫)학교 교관에 임명되어 자신의 직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듬해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에밀줄라의 「소설론(小説論)」을 게재하고,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전개한다. 번역 시집 「모습(於母影)」을 발표하고, 원고료로 받은 50엔을 기금으로 하여 최초의 문예평론 잡지인 「시가라미소시(しがらみ草紙)」를 창간하였다. 그리고 하르트만 미학을 배경으로 이시바시 닌게쓰(石橋忍月)와 논쟁¹²⁾을 하였고,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와는 ‘몰이상 논쟁(沒理想論爭)’¹³⁾을 펼쳐 문학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였으며, 아울러 평론을 문학의 한 장으로써 자리 잡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낭만주의 계열의 소설 『무희(舞姬)』·『덧없는 이야기(うたかたの記)』·『과발꾼(文づかひ)』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한다. 오가이의 초기문학 작품들은 계몽적이고 비평적인 성향을 띠어, 동서양 문화의 충돌 문제, 서구 문명에 바탕을 둔 진정한 개성의 발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 사회에 유럽 문명을 수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¹⁴⁾

그러나 초기의 이런 왕성한 문학 활동은 청일전쟁(1895), 고쿠라(小倉) 좌천(1899)¹⁵⁾, 러일전쟁(1905) 등으로 10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치게 된다. 러일전쟁

12) 1890년 이시바시 닌게쓰와 오가이 사이에 일어난 『무희』 논쟁으로 닌게쓰는 필명을 氣取半之丞로 『무희』를 써서 주인공 도요타로가 의지병약한 점을 지적하고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오가이는 아이자와(相沢)를 필명으로 사용하여 「氣取半之丞に与ふる書」로 맞대응함. 닌게쓰의 재반론과 오가이의 변론이 계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논쟁자체는 열기를 띠었지만, 논지의 전개는 중보되어 채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의 본격적 근대적인 논쟁이라 일컬어진다.

13) ‘이상(理想)’의 의미를 둘러싸고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와 오가이가 1891년에서 1892년에 걸쳐서 싸웠던 문학논쟁으로, 쇼요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자연을 닮아 광대한 것은 작자가 그 이상(주관)을 몰(沒)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비평에 임해서도 평론가의 이상(주관)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오가이는 하르트만의 미학을 빌려서 세계는 ‘實(real)’만이 아니라 ‘想(idea)’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의 이상’을 묘사하는 예술가는 당연히 그것을 느껴 제작하는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논쟁이 시작되었다.

14) 福田清人, 『人と作品(11)森鷗外』, 清水書院、1992, p.72.

이후 군의관으로서 최고의 지위인 육군 군의(軍醫) 총감에 오른 1907년부터 다시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초기의 문학 활동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당시 일본 문학의 주요 흐름이었던 자연주의 계열과는 다른 반자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잡지 『스바루(スバル)』에 『한나절(半日)』(1909)을 게재한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청년(青年)』(1910), 『기러기(雁)』(1911), 『재와 먼지(灰燼)』(1911) 등의 소설은 물론, 희곡, 평론, 수필 등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문학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렇지만 그의 왕성한 문학 활동은 『위타 섹스아리스(弁太・セクスアリス)』(1909)가 남녀 간의 일을 너무 대담하게 그렸다는 이유로 이 작품을 게재한 『스바루(スバル)』 제7호가 발매금지 처분을 받게 됨으로서 그의 문학 활동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오가이는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문학에 대한 자신의 꿈을 관철시키고자 다른 창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중 1912년에 노기마레스케(乃木希典)¹⁶⁾ 장군 부부의 자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노기 장군의 할복 자결은 오가이에게 작품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그 결과 역사소설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아베일족(阿部一族)』(1913), 『산쇼다유(山椒大夫)』(1915), 『다카세부네(高瀬舟)』(1916) 등이 있다.

1916년 오가이는 54세로 육군을 은퇴하고, 그 해 1월부터 「동경 일일 신문(東京日々新聞)」과 「오사카 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에 사전(史伝)소설인 『시부에츄사이(渋江抽齋)』를 연재하였다. 이 작품은 엄격한 실증적 정신과 시인적 감정의 융합을 보인 독자적인 사전(史伝)문학으로서, 근대의 전기문학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육군에서 퇴임한 그는 제실박물관장, 제국미술원장을 역임하다가 1922년에 일체의 세간의 명예나 칭호를 거부하며, "나는 이와미 태생 모리 린타로로서 죽으려한다(余ハ石見人森林太郎トシテ死センと欲ス)"¹⁷⁾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

15) 1899년 6월 8일 일본 육군성의 군의감이 되어 큐슈(九州)의 고쿠라(小倉)에 있는 제12사단 군의부장에 임명되는데, 이것은 계급 상으로는 승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12세인 1873년 고향인 쓰와노번(津和野藩)에서 동경에 상경한 이래 독일유학과 청일·러일전쟁을 제외하고는 동경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오가이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좌천이었다.

16) 일본 메이지 시대의 군인. 백작. 다카스기 신사쿠가 조직한 기병대에 가담하여 바쿠후군과 싸웠다. 청일전쟁 때 여단장으로 출전했으며 이어 육군중장으로 대만총독을 역임했다. 러일전쟁 때 제3군사령관으로 휘순을 공략해 고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는 퇴역 후에도 많은 부하를 죽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912년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무쓰히토가 죽자 부인과 함께 자결하였다.

17) 이기섭, 앞의 책에서 재인용 p.154

한다.

앞서 말했듯이 오가이는 생전에 군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등 고관대작(高官大爵)으로서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의학, 위생학에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논문과 평론을 남겼다. 또 한편으로는 소설가, 희곡가, 번역가, 평론가로서 활약하며, 시, 소설, 평론, 미술, 단가, 번역 등 다방면에 걸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일본 근대문학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희(舞姬)』의 창작배경

오가이는 1884년부터 약 4년 정도 군의관 신분으로 독일에서 유학하였고, 귀국 후 유학지인 독일을 배경으로 청춘의 사랑을 담은 독일 삼부작을 발표한다. 그 중에서도 『무희』는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도시 베를린을 무대로 메이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서구 유학을 통해 자아에 눈뜨는 과정과 이국 여성과의 사랑, 그리고 그 좌절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공간은 물론 주인공의 형상까지 오가이와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오가이의 귀국 후, 작품에 등장하는 엘리스의 모델로 추측되는 엘리제라는 독일 여성이 실제로 오가이의 뒤를 따라 일본으로 온 사건이 있었다.¹⁸⁾

따라서 본장에서는 『무희』의 창작 배경을 오가이의 독일유학 체험과 엘리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유학체험

오가이의 독일 유학의 목적은 ‘육군 위생제도의 조사와 선진 위생학’의 연구를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 육군은 콜레라 등으로 곤란을 겪으며 새삼 위생학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 연구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오가이는 이러한 국가의 요청과 개인의 입신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모리 집안의 부흥을 위해 당시 청년들이라면 선망 했던 유학길에 오른다.¹⁹⁾

18) 磯貝英夫, 앞의 책 p.13

19) 권태민, 앞의 논문 p.5.

처음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여 당시 독일 공사였던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를 방문한 오가이는 아오키 공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듣는다.

衛生学を修むるは善し。されど帰りて直ちにこれを実施せむこと、恐らくは難かるべし。足の指の間に下駄の緒挟みて行く民に、衛生論はいらぬ事ぞ。学問とは書を読むのみをいふにあらず。欧州人の思想はいかに、その生活はいかに、その礼儀はいかに、これだに善く觀ば、洋行の手柄は充分ならむといはれぬ。

(「독일일기(獨逸日記)」 1884년 10월 13일)²⁰⁾

위생학을 배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돌아가서 바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발가락 사이에 게타(下駄) 끈을 끼우고 다니는 백성에게 위생론은 쓸데없는 일이다. 학문이란 글을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인의 사상은 어떠한지, 그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 예의는 어떠한지, 이것만 잘 관찰하면 유학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4년간 그의 독일 유학 시기를 나누어 보면 1884년부터 1885년까지의 1년간을 라이프치히에서, 1885년에서 이듬해 1886년까지의 약 5개월간을 드레스덴에서, 1886년부터 1년 1개월 정도를 뮌헨에서, 마지막으로 1887년부터 귀국하기 전까지의 1년 4개월을 베를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4개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의 유명한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와 교수들의 지도 아래 그들의 선진 위생학을 수학하였다. 그리고 아오키 공사의 조언대로, 공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에서 맛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대학 생활과 문학서들을 탐독하고 예술 문화를 향유하면서 선진 유럽의 근대 사상에 심취 하였다.

그가 독일 유학중에 남긴 일기²¹⁾중의 하나인 「독일일기(獨逸日記)」에 의하면 독일 유학 시기에 사서 읽었다는 책은, 문학에 관한 책만도 450여권이 넘었다고 한다.²²⁾ 비록 유학 초기의 일기지만, 이것은 그가 유럽의 문명에 대한 지식 욕구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귀국 직후에 다수의

20) 이기섭, 앞의 책에서 재인용, pp.41~42.

21) 오가이의 독일유학에 관한 일기는 다음 4종이 있다. 『航西日記』는 동경을 출발하여 목적지 베를린에 도착하기까지 일어난 일을 한 문체로 쓴 것이며, 『獨逸日記』는 독일 체류 중에 기록한 것이며, 『軍務日記』는 독일군부대 파견근무중의 기록물이며, 『還東日乘』은 귀국길에 쓴 일기이다.

22) 中村ちよ 「ドイツ時代の鷗外の讀書調査-資料研究-」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森鷗外 I』有精堂, 1971, pp.45~46

단편을 발표하는데, 당시의 창작활동도 독일 체류기간 동안 축적된 독서체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유학지(留學地)였던 라이프치히는 오가이에게 있어서 서양의 문화, 특히 독일문화를 처음으로 접할 기회와 이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게 해준 곳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유학지였던 드레스덴은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능력을 발휘한 곳이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궁중무도회, 연극관람, 학회 등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상류층 독일인과 교제를 시작한다.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드레스덴의 생활은 상류층 독일 의관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독일인들을 만나고 귀족사회를 엿봄과 동시에 이국 남녀의 문화를 경험하는 등 서구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유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경험으로 그의 독일 삼부작 중 하나인 『과발꾼(文づかひ)』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독일 유학생화에 익숙해질 무렵 그는 세 번째 유학지인 뮌헨으로 향한다. 그는 뮌헨에서 독일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과 편안하고 자유스런 만남을 자주 가졌다. 그들과 함께 극장이나 술집에 간다든지 혹은 휴일에 교외로 외출을 하는 등 일본에서는 행할 수 없는 자유분방한 한때를 즐긴 것이다. 이러한 자유스런 교제 속에서 오가이는 화가인 하라다 나오지로(原田直次郎)²³⁾와 만나게 되고, 그를 모델로 하여 당시 쉬테른베르크 호수에서 익사한 바이에른 왕 루드비히 2세의 사건을 소재로 하여 독일 삼부작중 하나인 『덧없는 이야기(うたかたの記)』의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이후, 1887년 세균학을 배우기 위해 마지막 유학지인 베를린에 도착한 오가이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독일 유학 생활을 한다. 마치 외국이면서도 일본 국내 공간에서의 생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일본인과의 교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직속상관인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憲)²⁴⁾의 독일 행은 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그동안 독일에서 느끼고 있던 근대적 분위기의 자유에 대한 환희와 감동이 우울함과 압박감으로 바뀌어 갔다.

국가의 명령과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시작되었던 독일유학을 통해 오가이

23) 하라다 나오지로(原田直次郎: 1863~1899) 화가, 동경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884년 독일에 유학. 뮌헨미술학교에서 역사화, 풍속화를 배웠다. 오가이와 친분이 있으며, 귀국 후 메이지 미술회를 창립하여 서양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24) 石黒 忠憲 (いしぐろ ただのり, 1845 ~ 1941) 메이지 시대의 의사, 일본육군군의로 초창기의 군의제도를 확립시켰다

는 유럽의 근대적 분위기, 자유로운 대학의 학문 풍토를 접하면서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서구 유럽의 ‘근대적 자아’를 자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미묘한 의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육군 군의부 장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불만과 유학생들을 같이한 동료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날마다의 과업에 대해서 점차로 사무적이며, 냉정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독일일기(獨逸日記)」에 적어나갔다. 이는 『무회』의 주인공 도요타로가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가문과 공명심을 위한 자아’에서 점차 서구의 자유를 접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엘리제 사건

오가이는 1888년 9월에 약4여년에 걸친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다. 그리고 그가 귀국한 며칠 후에 『무회』의 여주인공, 엘리스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여성이 그의 뒤를 따라 독일기선 ‘게네라르 웰다’ 호를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무회』의 여주인공과 같은 이름인 엘리스로 알려져 왔으나 가네야마 시게히데(金山重秀), 나리타 도시다카(成田俊隆)에 의해, 엘리제 와저트(Elise Wiegert)로 밝혀졌다.²⁵⁾

엘리제에 대해 오가이 자신이 남긴 자료는 거의 없다. 단지 그의 여동생인 기비코의 증언이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오가이가 귀국할 당시의 사정을 여동생 기비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八日お歸りの晩に、お兄様はすぐ其の話をお父様になすったさうです。ただ普通の関係の女だけれど、自分はそんな人を扱ふ事は極不得手なのに、留学生の多い中では面白づくに家の生活が豊かな様に噂して唆かす者があるので、根が正直な婦人だから真に受けて「日本に往く」といったさうです。²⁶⁾

8일 돌아오신 밤에 오라버니는 바로 그 이야기를 아버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보통관계의 여성이지만 자신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데 익숙지 못하지만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집이 부자라는 소문이 있고, 근본이 착한 여성이기 때문에 진실로 받아

25)金山重秀 成田俊隆 「來日したエリーゼの照明」 『国文学 解釈と鑑賞』1981.8.

26)小金井喜美子, 앞의 책, p.103.

들어 ‘일본에 간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비코는 오가이와 엘리제가 ‘보통의 관계’ 일 뿐이라고 하였으며, 오랫동안 이러한 기비코의 말을 인용하여 엘리제는 ‘보통의 관계’ 인 그냥 스쳐가는 여성일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²⁷⁾ 그렇지만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머나먼 일본 땅으로 온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보통의 관계’ 이상의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비코는 엘리제를 “약간 몸집이 작은 미인. 조금도 악의가 없는 듯한(何小柄な美しい人だよ。ちっとも悪気の無ささうな.)”²⁸⁾ 온순하고 순진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엘리제는 귀국 후에 오가이의 어머니와 기비코의 남편인 고가네이 요시기요(小金井良精)를 통한 여러 차례의 설득으로 4주여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된다. 육군의 관비 유학생으로서 위생학 연구를 위해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전도유망한 오가이에게 있어 그의 뒤를 따라 독일 여성이 일본으로 건너온, 일명 ‘엘리제 사건’ 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 오가이의 앞날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한 그의 가족들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육군 내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오가이는 분명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시부카와 교(渋川驍)는 오가이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회』를 썼다고 하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すでに稿のなっていた『うたたかの記』より、先に発表することになったのは、かれのあとを追ってきたエリスの噂が陸軍省のほうにも高まってきたので、それに先手を打って、彼らの口を封ずるための意図があったのだと、小金井喜美子は伝えている。(中略) 鷗外は、かれの理智を働かせて、この計画ができるだけ、よく運ぶような用意は整っていたようである。(中略)さらに彼は、作品自身のなかに、そのような効果がある仕掛けを用意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それはその作品のモデル性をハッキリさせていることだ。そのなかの一番のクサビとなっているのは、山県有朋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想像させる天方伯を登場させたことだろう。というのはこのエリス問題は、す

27) 권태민, 「森鷗外の 自我意識 考-初期 三部作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2002, p.135.

28) 小金井喜美子, 앞의 책, p.103.

데에陸軍の大御所山県の耳に入り、その人の意見によって、すでに無事解決した問題であることを、人々に知らせることはなかったか。山県が、すでにその過失を許したようなことであれば、陸軍省のなかで、それを、いまさら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だ。それを人々に納得させ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それはそれとして、一応、かれの目算どおりの成果をあげたように思われる。²⁹⁾

이미 원고화 되었던, 「덧없는 이야기」보다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은 그를 따라 들어 온 엘리스의 소문이 육군성 내부에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선수를 쳐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고가네이 기비코(小金井喜美子)가 전하고 있다. (중략) 오가이는 그의 기지를 발휘하여 이 계획이 가능한 잘 성사되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다. (중략) 다시금 그는 작품 자신 속에 그러한 효과가 있는 어떠한 장치를 준비한 것은 아닐까? 그것은 이 작품의 모델성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³⁰⁾를 연상케 하는 야마가타 백작(天方伯)을 등장시킨 것이다. 즉, 이 엘리스 문제는 이미 육군 최고 권력자인 야마가타가 이미 알고 있고, 야마가타의 의견에 의해 무사히 해결된 문제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일까. 야마가타가 이미 그 과실을 용서한 것이라면, 육군성 내부에서 그것을 거론해보았자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그의 계산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오가이가 살던 시기는 봉건 사회와 근대사회가 공존하는 양상의 사회였다. 최고 엘리트 보수 관료 집단인 육군 내에서 파란 눈의 서양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했으며, 사회적 분위기 또한 결코 결혼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사회적으로 출세해야만 했던 오가이로서 자신의 입장을 어떠한 식으로든 정리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회』 창작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의 시부카와의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

29) 渋川 驍 『森鷗外、作家と作品』 筑摩書房, 1985, pp.93~94

30)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1838~1922):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군인, 정치가, 원사(元帥), 공작에 이르렀고, 군부·정계의 실력자로서, 『무회』 집필당시에는 내무경(內務卿)의 백작이었다.

1) 연민의 정

우선, 도요타로와 엘리스와의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의 시발점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산시로(三四郎)』(1908) 속에서 인용해서 유명한 말이 되었다는 서양속담 「Pity is akin to love(연민은 사랑의 시작)」라는 말과 같이 순수한 동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今この処を過ぎんとするとき、鎖したる寺門の扉に倚りて、声を呑みつつ泣くひとりの少女あるを見たり。年は十六七なるべし。被りし巾を洩れたる髪の色は、薄きこがね色にて、着たる衣は垢つき汚れたりとも見えず。我足音に驚かされてかへりみたる面、余に詩人の筆なければこれを寫すべくもあらず。この青く清らにて物問ひたげに愁を含める目の、半ば露を宿せる長き睫毛に掩はれたるは、何故に一顧したるのみにて、用心深き我心の底までは徹したるか。彼は料らぬ深き歎きに遭ひて、前後を顧みる違なく、ここに立ちて泣くにや。我が臆病なる心は憐憫の情に打ち勝たれて、余は覺えず側に倚り、「何故に泣き玉ふか。ところに繫累なき外人は、却て力を借し易きこともあらん。」と言ひ掛けたるが、我ながらわが大胆なるに呆れたり。

(『森鷗外全集1』」p.6)

지금 이곳을 지나려고 할 때 닫힌 사원 문에 기대어 목소리를 죽인 채 우는 한 소녀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이는 십 육칠 세 가량 되었을 것이다. 머리에 쓴 수건 사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색깔은 연한 갈색이고 입고 있는 옷은 때가 끼었으나 더럽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 발소리에 놀라 돌아본 얼굴, 나에게 시인다운 소질이 없어 이것을 그려 낼 재간은 없으나, 푸르고 맑은 뭔가 애원하듯 우수를 머금은 눈동자가 이슬을 반 정도 담은 기다란 속눈썹에 가려져 있는 것이 웬지 한번 돌아본 것 만으로도 조심성 많은 내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깊은 슬픔에 빠져있기에 앞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기에 서서 우는 것일까? 연약한 내 마음은 연민의 정에 못 이겨 무의식중에 옆으로 다가가서 “왜 우십니까, 때로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 오히려 힘이 될 때도 있을 텐데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나 스스로도 나의 대답함에 기가 막혔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요타로는 어느 날 오래 된 성당 앞을 지나치다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연약한 마음”이 “연민의 정”에 못 이겨 그녀에게 말을 건네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민의 정” 이 생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위의 인용문은 사원 문에 기대어 울고 있는 엘리스를 처음 본 도요타로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압도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도요타로는 이 이국 소녀를 처음 본 순간의 신비스럽고 황홀한 심정을 “시인다운 소질” 이 없이는 표현할 수 없다고 말 할 만큼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매료당한다. 그녀의 “푸르고 맑은”, “우수를 머금은” 듯한 눈동자가 너무 깨끗하고 청아하여 그 눈빛은 도요타로의 속내를 꿰뚫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고, 순간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彼は優れて美なり。乳の如き色の顔は燈火に映じて微紅を潮したり。手足の纖くなるは、貧家の女に似ず。 (『森鷗外全集1』 p.7)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우유 빛 얼굴은 등불에 비쳐 분홍색을 띠고 있었다. 손발이 가냘프고 부드러운 것은 가난한 집 처녀 같지 않았다.

위의 인용문 역시 엘리스의 아름다운 미모에 대한 서술로, 그녀의 ‘우유 빛 피부’ 는 단지 아름답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만으로도 어떤 기품이 있어 그녀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우아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토요타로가 ‘연민의 정’ 에 못 이겨 엘리스에 다가간 궁극적인 이유는 엘리스의 외모가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연민의 정’ 이라는 것은 우월자가 약자에게 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我を救ひ玉へ、君。わが耻なき人とならんを。母はわが彼の言葉に従はねばとて、我を打ちき。父は死にたり。明日は葬らでははぬに、家に一錢の貯だになし。」

(『森鷗外全集1』 p.6)

“당신. 내가 창피스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구해 주세요. 어머니는 제가 그 사람 말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를 다그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내일은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집에는 돈 한 푼 없어요.”

위의 인용문은 엘리스가 낯선 외국인인 도요타로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으로, 엘리스가 극빈의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엘리트인 도요타로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가정환경이다. 즉, 신분적으로도 교양적으로도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상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요타로가 엘리스에게 품는 감정은 하층 계급자에 대한 보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의 사랑의 시발을 정상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보기에 두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구와바라 미요코(桑原美代子)는 “엘리스와 도요타로의 성장환경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란 엘리트인 도요타로의 입장에서 보면, 극빈하게 자라서 교양이 없을 뿐더러· 사회적 지위도 없는 엘리스는, 그러나 훌륭한 사회적 지위 따위는 없지만, 인간적 자질에는 매우 출중하다. 도요타로는 어떤 종류의 쇼크를 받고 나서 인간본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사회적 지위에만 그 가치를 발견하려 했지만, 인간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도 매력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양자는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갖고 있어, 서로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두 사람의 격차가 보다 두 사람의 연애감정을 깊게 만들었을 것이다.”³¹⁾라고 두 사람의 이질적인 환경의 격차가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깊게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외부적인 요인

바로 앞장에서 인용한 예문에서 본 것과 같이 엘리스가 도요타로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는 장례식 치를 돈 한 푼 없다는 말에 도요타로는 시계와 돈을 엘리스에게 준다. 이것을 계기로 다음에는 엘리스가 도요타로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도요타로의 집에 온다.

この恩を謝せんとて、自ら我僑居に來し少女は、(中略)この時を始として、余と少女

31) [エリス、豊太郎の生きてきた環境は、非常に対照てきであった。『厳しき家庭の訓』で育ったエリートの豊太郎から見れば、極貧で育ち、教養もなく、社会的立場も悪いエリス。しかし、立派な肩書きなどなくても、非常に人間的資質には優れている。豊太郎はある種のショックを受け、人間本来の姿を知り、肩書きばかりに価値を見い出していたが、人間性を重んじるようになった。そのような点にも魅力はあったと思える。両者は、お互いにないものを持ち合わせており、お互いに刺激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そしてそのような二人のギャップが、より二人の恋愛を深いものにしたのであろう。』 桑原 美代子「森鷗外『舞姫』論」『学海』 1991, p.64

との交漸く繁くなりもて行きて、同郷人にさへ知られぬれば、(中略)われ等二人の間にはまだ癡騷なる歡樂のみ存じたりしを。(『森鷗外全集1』 p.8)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사는 집을 찾아온 소녀는 (중략)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나와 소녀와의 만남이 점차 빈번해져 동향인에게까지 알려졌는데, (중략) 우리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때까지는 천진스런 즐거움만을 주고받았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도요타로를 찾은 엘리스와 도요타로는 이를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되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담담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 사랑의 감정이 싹트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두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同郷人の中に事を好む人ありて、余が屢々芝居に出入して、女優と交るといふことを、官長の許に報じつ。さらぬだに余が頗る学問の岐路に走るを知りて憎み思ひし官長は、遂に旨を公使館に伝へて、我が官を免じ、我が職を解いたり。

(『森鷗外全集1』 p.8)

동향인 중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극장에 자주 드나들며 여배우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관장에게 보고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상당히 다른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 관장은 마침내 그 사연을 공사관에 알리고 나를 해임시켰다.

我が生涯にて尤も悲痛を覚えさせたる二通の書状に接しぬ。この二通は殆ど同時にいだししものなれど、一は母の自筆、一は親族なる某が、母の死を、我がまたなく慕ふ母の死を報じたる書なりき。(『森鷗外全集1』 p.8)

내 생애에 나를 가장 비통하게 만든 두 통의 편지를 접했다. 이 두 통은 거의 동시에 받은 것으로, 하나는 어머니의 자필편지였고, 하나는 친척인 모(某)씨가 어머니의 죽음을, 내가 다시없이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였다.

비슷한 시기에 “면직” 과 “어머니의 죽음” 이라는 사건을 한꺼번에 겪게 된 도요타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약속된 임신출세의 길이었던 독일 유학에서의 면직은 젊은 도요타로의

앞날에 먹구름과도 같은 것으로 당장 독일에서의 체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귀국한다 해도 불명예로 인해 입신출세는 기대하기 힘든 신세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홀어머니의 죽음은 그를 정신적으로 힘들고 외롭게 만들었을 것이다.

야마자키 구니노리(山崎国紀)는 이 두 사건을 이중의 비극이라 칭하고 “타국에서 이와 같은 이중의 비극을 겪어온 인간의 마음 상태는 정상적인 평형감을 자칫 잃기 쉽게 만들고, 어두운 고독감과 집요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나약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³²⁾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도요타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평형감을 잃고, 깊은 암흑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을 때 가까이에 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엘리스였다.

余とエリスとの交際は、この時までは余所目に見るより清白なりき。(中略)余が彼を愛づる心の俄に強くなりて、遂に離れ難き中となりしは此折なりき。

(『森鷗外全集1』 p.8)

나와 엘리스와의 교제는 그때까지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깨끗하였다. (중략)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타올라 드디어 헤어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것은 이때였다.

위의 인용문을 보듯이, 이 이중의 비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동정과도 같은 연민의 정, 사제(師弟)관계와 같은 순수한 관계였지만, 면직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비운의 두 사건을 계기(契機)로 급속히 가까워진다.

その美しき、いぢらしき姿は、余が悲痛感慨の刺激によりて常ならずなりたる脳髓を射て、恍惚の間にここに及びしを奈何にせむ。

(『森鷗外全集1』 p.9)

그 아름다움 그 가련한 모습은 나의 비통한 느낌의 자극에 의해서 평상시와 다른 나의 두뇌를 자극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매료되어버렸고, 끝내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어찌하리오.

위의 인용문은 이 작품에서 도요타로의 엘리스에 대한 사랑의 성격을 고찰하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와 다른 나의 두뇌」에서 알

32) 山崎国紀, 『森鷗外-基礎的論究』, 八木書店, 1989, p.62.

수 있듯이 이미 도요타로는 평정심을 잃고, 판단력이 둔화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애잔함에 매료되어 헤어질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로의 사랑에 대해 이마무라 다카시(今村孝)는 “이 애정이 한 번도 애정 그 자체를 충동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다른 동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도요타로의 사랑의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빈곤에의 동정, 교양의 스승으로서의 교제, 경제적 필요와 정성을 다한 엘리스의 권유에 의한 동거, 도요타로의 마음에는 사랑 그 자체를 동기로 하는 행동에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면직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괴로운 마음에 의해 이 규제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³³⁾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도요타로의 엘리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사랑 그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

3) 자아 각성

작품 속에서 독일로 떠나기 전에 그려지고 있는 도요타로의 모습을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면,

余は幼き比より厳しき庭の訓を受けし甲斐に、父をば早く喪ひつれど、学問の荒み衰ふることなく、旧藩の学館にありし日も、東京に出でて予備費に通ひしときも、大学法学部に入りし後も、太田豊太郎といふ名はいつも一級の首にしるされたりしに、一人子の我を力になして世を渡る母の心は慰みけらし。十九の歳には学士の称を受けて、大学の立ちてよりその頃までにまたなき名誉なりと人にも言はれ、某省に出仕して、故郷なる母を都に呼び迎え、楽しき年を送ること三とせばかり、官長の覚え殊なりしかば、洋行して一課の事務を取り調べよとの命を受け、我が名を成さむも、我が

33) 「この愛情が、一度も愛情それ自体を衝動としては、つまり他の動機に助けられることなしには、行動にまで発現しないことに、太田の愛の独自性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貧窮への同情、教養の師匠としての交際、経済的必要と『心の誠を顕はして』のエリスの勧誘とによる同居。太田の心には、愛そのものを動機とする行動への規制が働い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だからこそ、肉体的交渉をもつためには、解職され母に死なれた心の動転によってこの規制が一時的に作動しなくなった状況が必要だ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今村孝「『舞姫』雑考」『The Humanities』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1976, p.73.

家を興さむも、今ぞとおもふ心の勇み立ちて、五十を踰えし母に別るゝをもさまで悲しとは思はず、遙々と家を離れてベルリンの都に来ぬ。 (『森鷗外全集1』 pp.3~4)

어렸을 때부터 엄한 가정교육을 받은 덕택으로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학문이 뒤떨어지는 일 없이, 고향의 학관에 다녔던 때나 동경으로 나와 예비학교에 다녔을 때도, 또한 대학 법학부에 들어간 후에도 오타 도요타로라는 이름은 항상 첫 번째로 기록되었으니, 외아들인 나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어머니에겐 더 없는 위안이었을 것이다. 19세에는 학사의 칭호를 받아 대학 창립부터 그때까지 다시없는 명예라고 칭찬받으며 모 기관의 관직에 나가게 되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 와서 3년 정도 즐거운 세월을 보냈다. 그 무렵 장관의 총애가 특별하더니, 서양으로 가서 그때까지 맡아보던 과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라는 하명을 받았다. 나의 이름을 날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지금이라는 마음이 용솟음쳐 50을 넘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까지 슬프다고 생각지 않고 멀리 집을 떠나 베를린에 왔다.

위 인용문은 도요타로의 이력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도요타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는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19세의 나이로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게 되고, 3년 정도 근무한 다음 국비유학생 자격으로 독일로 유학을 간다. 지금까지 가문을 위해, 입신출세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도요타로의 내면의 의식은 “자신을 위한 자아” 라기 보다는 “가문과 공명심을 위한 자아”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가문을 위해, 혹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문을 배우고 국가의 관료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항상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의 의지나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수동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예문에서

余は父の遺言を守り、母の教に従ひ、人の神童なりなど褒むるが嬉しさに怠らず学びし時より、官長の善き働き手を得たりと獎ますが喜ばしさにたゆみなく勤めし時まで、ただ所動的、器械的の人物になりて自ら悟らざりしが、(中略)

(『森鷗外全集1』 p.5)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남들이 신동이라고 칭찬해 주는 기쁨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공부 했을 때부터, 관장이 좋은 일꾼을 얻었다고

겨려해 주는 것이 기쁨에, 쉴 새 없이 일해 오던 그때까지는 다만 수동적, 기계적인 인물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지만,(중략)

와 같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요타로는 독일에서 새로운 환경과 자유를 접하면서 관청일이 익숙해 지자, 대학의 청강생으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자유로운 독일의 대학 분위기 속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하는 사이에

かくて三年ばかりは夢の如くにたちしが、時来れば包みても包みがたきは人の好尚なるらむ、
(『森鷗外全集1』 p.5)

이렇게 3년 정도는 꿈처럼 흘렀는데, 때가 되면 감추려 해도 감추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취향인 것이다.

와 같이 차츰 ‘취향(好尚)’, 즉 자기의 개성(個性)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료사회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맹종하고 있던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제까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의 내부에서 서서히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余は私に思ふやう、我が母は余を活きたる辞書となさんとし、我が官長は余を活きたる法律となさんとやしけん。辞書たらむは猶ほ堪ふべけれど、法律たらんは忍ぶべからず。今までは瑣々たる問題にも、極めて丁寧にいらいしつる余が、この頃より官長に寄する書には連りに法制の細目にかかづらふべきにあらぬを論じて、一たび法を精神をだに得たらんには、紛々たる万事は破竹の如くなるべしなど、広言しつ。又大学にては法科の講筵を余所にして、歴史文学に心を寄せ、漸く蔗を嚼む境に入りぬ。

(『森鷗外全集1』 p.5)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 어머니는 나를 살아있는 사전으로 만들려고 했고, 관장은 나를 살아있는 법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사전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법률은 참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문제에도 매우 정중하게 응답했던 내가, 그때부터는 관장에게 보내는 서류에 자주 법제의 세목에 얽매일 게 아님을 논하며, 일단 법의 정신만 이해할 수가 있다면 세세한 법률의 여러 가지 문제는 대쪽 자르듯이 간단명료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큰소리 쳤다. 또 대학에서는 법과의 강의를

소홀히 하고 역사 문학에 관심이 생겨 겨우 만족할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위의 인용문을 보듯이, 도요타로는 지금까지의 수동적, 기계적인 삶의 방식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근대적 자아로의 변모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저항과 역사문학이라는 비현실적인 학문으로의 지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 각성이라는 마음의 동요는 새로운 삶의 욕구가 되어 도요타로는 아름다운 독일여성 엘리스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시작된 엘리스와의 관계는 곧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근대적 자아 각성을 통한 이국 여성과의 사랑에 대해 권태민은 “오가는 도요타로를 통해 엘리스와의 만남에 몸을 던지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자각에 대한 욕망의 성숙을 의미하며, 청년 오가의 근대시민의식의 각성으로 인한, 근대도시의 소시민계급의 생활의식, 곧 생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³⁴⁾ 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도요타로의 “면직”이라는 뜻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도요타로에게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입신출세의 부담도, 자신을 기계처럼 이용하는 관료 조직으로부터의 속박도 없는 소시민적 행복감을 느낀다.

余は彼ら親子の家に寄寓することとなり、エリスと余とはいつよりとはなしに、有るか無きかの収入を合せて、憂きがなかにも楽しき月日を送りぬ。

(『森鷗外全集1』 p.9)

나는 그들 모녀의 집에 기거하면서 엘리스와 나는 어느 사이에 쥐꼬리만 한 수입을 합쳐서 울적한 속에서도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시민적 행복은, 도요타로의 천성적으로 ‘연약하고 가여운 마음’으로 인해 곧 깨지고 만다. 그것은 면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독일에 머물 수 있게 도와준 친구 아이자와 겐키치(相沢謙吉)가 엘리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입신출세의 길을 택하라고

34) 권태민, 앞의 논문 p.276.

충고한 것을 승낙했기 때문이다.

大洋に舵を失ひしふな人が、遥なる山を望む如きは、相沢が余に示したる前途の方鍼なり。されどこの山は猶ほ重霧の間に在りて、いつ往きつかんも、否、果して往きつきぬとも、我中心に満足を与へんも定かならず。貧きが中にも楽しきは今の生活、棄て難きはエリスが愛。わが弱き心には思ひ定めんよしなかりしが、姑く友の言に従ひて、この情縁を断たんと約しき。余は守る所を失はじと思ひて、おのれに敵するものには抗抵すれども、友に対して否とはえ対へぬが常なり。(『森鷗外全集1』 p.11)

망망대해에서 노를 잃은 뱃사람이 아득히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은 아이자와가 나에게 가르쳐준 앞날에 대한 망침이다. 그러나 이 산은 여전히 여러 겹 안개 사이에 파묻혀 있어 언제 다다를지도, 아니, 과연 다다른다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을 주리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운 것은 지금의 생활, 버리기 어려운 것은 엘리스의 사랑, 내 약한 마음으로는 결정할 수 없었지만, 당분간 친구의 충고에 따라 이 정연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 생각에, 나에게 거스르는 것에는 저항하면서도 친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도저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도요타로가 좌절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도요타로는 ‘버리기 어려운 것은 엘리스와의 사랑’ 이라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 ‘연약한 마음’ 으로는 결정할 수 없었지만, 아이자와의 충고에 따라 엘리스와의 정연을 끊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요타로의 엘리스에 대한 사랑은 애절하거나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요타로는 어디까지나 수동적,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스와의 연애의 좌절은 친구인 아이자와가 한 충고의 결과라기보다는 도요타로의 ‘연약한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엘리스와의 사랑은 자유로운 인격과 인격의 결합으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아를 각성한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한 운명이어야 한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처음으로 자신은 진정으로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요타로는 천성적으로 ‘약하고 가련한 마음’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이는 곧, 도요타로의 ‘진정한 자아 각성’ 이 ‘약하고 가련한’ 본성을

초월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미가타 백작으로부터 러시아로의 동행을 권유 받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余はおのれが信じて頼む心を生じたる人に、卒然ものを問はれたるときは、咄嗟の間、其答の範圍を善くも量らず、直ちにうべなふことあり。さてうべなひし上にて、其為し難きに心づきても、強て当時の心虚なりしを掩ひ隠し、耐忍してこれを実行すること屢々なり。(『森鷗外全集1』 p.12)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 갑자기 무엇을 질문 당했을 때는 깜짝 그 대답의 범위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바로 승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승낙한 이상은 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도 억지로 당시의 마음이 거짓이었던 것을 숨기고 인내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도요타로는 연장자 혹은 권력자에게 현실적인 이유는 숨기고 순종하듯 바로 승낙해 버리고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도요타로의 태도는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는 전혀 없으며, 이는 곧 도요타로가 자각한 근대적 자아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 각성이 부족한 대목은 아미가타 백작과 러시아의 동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일본으로 함께 귀국하기를 권유 받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われと共に東にかへる心なきか、君が學問こそわが測り知る所ならね、語学のみにて世の用には足りなむ、滞留の余りに久しければ、様々の係累もやあらんと、相沢に問ひしに、さることなしと聞きて落居たりと宣ふ。其気色辞むべくもあらず。あなやと思ひしが、流石に相沢の言を偽なりともいひ難きに、若しこの手にしも縋らずば、本國をも失ひ、名譽を挽きかへさん道をも絶ち、身はこの広漠たる歐洲大都の人の海に葬られんかと思ふ念、心頭を衝いて起れり。嗚呼、何等の特操なき心ぞ、「承はり侍り」と応へたるは。(『森鷗外全集1』 p.14)

“나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나, 자네 학문은 내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 뛰어난 어학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도움이 될 걸세. 체류가 너무 길다보면 복잡한 인간관계도 있을 것 같아 아이자와에게 물었는데 그러한 일은 없다고 듣고 안심했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얼굴에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만 역시 아이자와의 말을 거짓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웠고 만약 대신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본국도 잃어버리고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도 끊어져서 몸은 이

넓디넓은 유럽 대도시의 인파에 파묻혀 매몰되어 가리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그 순간 지조 없는 내 마음은 어느새 “황송합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백작은 도요타로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복잡한 인간관계는 없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마가타 백작의 요청을 도요타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고, 아이자와의 말 역시 거짓말이라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국도 잃어버리고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도 끊어져서 몸은 이 넓디넓은 유럽 대도시의 인파에 파묻혀 매몰되어 가리라” 에서 알 수 있듯이 도요타로의 내면에는 입신출세에 대한 강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유학을 통해 서구의 자유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가문과 공명심을 위한 자아’ 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 를 자각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요타로는 스스로 ‘가문과 공명심을 위한 자아’ 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도요타로는 애초부터 진정한 자아가 각성되지 않는 내면적으로 연약한 인물인 것이다.

嗚呼、独逸に來し初に、自ら我本領を悟りきと思ひて、また器械的人物とはならじと誓ひしが、こは足を縛して放たれし鳥の暫し羽を動かして自由を得たりと誇りしにはあらずや。足の糸は解くに由なし。曩にこれを繰つりしは、我が某省の官長にて、今はこの糸、あなあはれ、天方伯の手中に在り。 (『森鷗外全集1』 pp.13~14)

아아,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스스로 나의 본분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며 기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것은 다리를 묶이고 풀려난 새가 잠시 날개를 퍼덕이며 자유를 얻었다고 뽐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다리의 실은 풀릴 이유가 없다. 이전에 이 실을 조종한 것은 나의 모 부처의 관장이었고, 지금은 이 실을 가없게도 아마가타 백작의 수중에 있다.

위의 인용문은 도요타로가 일본귀국과 출세를 위해 사랑을 버려야하는 자책감으로 방황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윤리적 상실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요타로는 결국 근대적 자아를 각성한 주체적인 인간이 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요타로의 자아의 자각은 일시적인 환상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의 입신출세 지향적인 가정교육과, 국가라는 환경에서 형성된 기존의 자

아를, 짧은 유학생생활에서 만들어진 독립된 자아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도요타로는 다음과 같이 고뇌하고 있다.

我脳中には唯々我は免すべからぬ罪人なりと思ふ心のみ満ち満ちたりき。

(『森鷗外全集1』 p.13)

나의 뇌리 속에는 그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 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 질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이 야속하다는 생각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라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임신출세를 위해 임신한 미친 엘리스를 남겨 놓고 아미가타백작을 따라서 일본으로 귀국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임신출세의 길을 선택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제삼자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것을 다음의 부분에서도 .

相沢の助にて日々の生計には窮せざりしが、此恩人は彼を精神的に殺ししなり。

(『森鷗外全集1』 p.14)

아이자와의 도움으로 그날그날의 생계는 꾸려갔지만 이 은인³⁵⁾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죽인 것이다.

와 같이 알 수 있다. 또

これよりは騒ぐことはなけれど、精神の作用は殆全く廃して、その痴なること赤児の如くなり。医に見せしに、過劇なる心労にて急に起りし「パラノイア」といふ病なれば、治癒の見込なしといふ。ダルドルフの癲狂院に入れむとせしに、泣き叫びて聴かず、後にはかの襦袢一つを身につけて、幾度か出しては見、見ては歎歎す。余が病牀をば離れねど、これさへ心ありてにはあらずと見ゆ。ただをりをりをり思ひ出したる

35) 여기서 말하는 은인은 친구 아이자와 겐키치를 말한다.

やうに「薬を、薬を」といふのみ。

(『森鷗外全集1』 p.15)

이때부터는 소란피우는 일은 없었으나 정신작용은 거의 완전히 기능을 그 모자라는 짓은 갓난아이와 같았다. 의사에게 보였지만 너무 심한 정신적인 피로로 인해 갑자기 일어난 편집증이라는 병인데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했다. 발도르프에 있는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울부짖으며 듣지 않았다. 나중에는 기저귀 하나만 몸에 지니고 몇 번인가 꺼내어 들여다보고는 또 흐느껴 운다. 내 병상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것조차도 제정신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때때로 생각난 듯이 “약을, 약을” 하고 말할 뿐이었다.

와 같이 망상병에 걸려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 심지어 뱃속에 아기도 있는 이 가련하고 미친 여성을 버리고 일본으로 귀국하면서도 친한 친구인 아이자와의 탓으로 돌리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다.

余が病は全く癒えぬ。エリスが生ける屍を抱きて千行の涙を濺ぎしは幾度ぞ。大臣に隨ひて帰東の途に上ぼりしときは、相沢と議りてエリスが母に微かなる生計を営むに足るほどの資本を与へ、あはれなる狂女の胎内に遺しし子の生れむをりの事をも頼みおきぬ。嗚呼、相沢謙吉が如き良友は世にまた得がたかるべし。されど我脳裡に一点の彼を憎むところ今日までも残れりけり。(『森鷗外全集1』 p.16)

나의 병은 완전히 나았다. 그러나 살아있는 엘리스의 송장을 껴안고 피눈물을 몇 번이나 흘렸는지 모른다. 대신을 따라 귀국 길에 올랐을 때는 아이자와와 의논해서 엘리스 어머니에게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한 밑천을 건네며 가련한 미친 여인의 뱃속에 남은 아기가 태어날 때의 일을 부탁해 두었다. 아아, 아이자와 겐키치와 같은 좋은 친구는 세상에 다시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의 뇌리에 단 하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었다.

위의 인용문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여기에는 엘리스의 불행을 애처롭게 생각함과 동시에, 결국은 엘리스를 속였다고 하는 도요타로 자신의 위약함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는 미쳐버린 엘리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엘리스의 어머니에게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일본으로 도망치듯 귀국하면서 그의 친구인 아이자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결국 도요타로는 자신의 임신출세를 위해 엘리스를 버리고 귀국길에 오른다. 그의 귀국은 곧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하던 관장이 지배하는 체제, 메이지 시대의 관료조직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도요타로가 엘리스를 사랑한 것은 근대적인 자아 각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삼자인 그의 친구 아이자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又彼少女との關係は、縱令彼に誠ありとも、縱令情交は深くなりぬとも、人材を知りてのこひにあらず、慣習といふ一種の情性より生じたる交なり。意を決して断てと。

(「森鷗外全集1」 p.11)

또 그 소녀와의 관계는 설령 진실이 있었다라도 설령 정이 깊어졌더라도, 사람을 알고서의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일종의 타성에서 생긴 교제다. 정을 단호히 끊어라

인용문에 나타나듯, 도요타로와 엘리스와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도요타로의 유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요타로는 서구유학을 통해 근대적 자아를 자각해서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의 연약한 본성의 한계를 벗어나 버릴 수 없는 나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파국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처럼 임신출세를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도망치듯 떠난다는 『무희』의 스토리는 일본 에도시대의 인정본(人情本)³⁶⁾과도 같은 진부한 러브스토리로, 두 주인공은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라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도요타로와 엘리스와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희』가 발표된 1890년 1월의 『시가라미소시(しがらみ草紙)』 제 4호에 실린 데이텐 조우센(諦天情善)의 「참다운 연정을 깨닫지 못한 도요타로」(『舞姫』를 읽고서)라는 구절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⁷⁾ 그리고 이는 이시바시 닌게쓰와의 『무희』 논쟁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닌게쓰는 “『무희』를 ‘연애와 공명이 양립할 수 없는 인생의 경우’에 ‘지위와 상황의 관계를 발휘’ 시키고자 한 작품으로 파악하고, 주인공이 ‘나약한’

36) 에도시대에 유행했던 소설로서 당시 에도 서민의 연애생활을 그린 풍속소설.

37) 山崎国紀, 앞의 책, p.59.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선택의 ‘상황’이 강조되기보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그의 성격이 모순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³⁸⁾ 닌게쓰는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관계를 연애로 보고 있으며, 이 연애는 근대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가이는 도요타로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는 데이텐의 평을 들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謫天情仙は嘗て此記を評して云く。太田は眞の愛を知らぬものなりと。僕は此言を以て舞姫評中の雋語となす。舞姫を読みてここに思到らざるものは、猶情を解すること浅き人なり。(中略) 太田生は眞の愛を知らず。然れども猶眞に愛すべき人に逢はむ日には眞に之を愛すべき人物なり。足下等は能く太田生に慙づる所なきか。」³⁹⁾ 데이텐 조우센은 전에 이 기록을 평하여 말한다. 오타는 참다운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나는 이 말을 가지고 『무희』 평 속에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무희를 읽고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정(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중략) 오타생은 참다운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과 만나는 날에는 진실로 이것을 사랑해야 할 인물이다. 귀하들은 정말 오타생에게 부끄러운 바가 없는가.

오가이는 닌게쓰에게 ‘정(情)’을 이해하는 것이 얕은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오가이는 그 ‘정(情)’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것이 근대적 ‘연애’ 관념에 기초한 닌게쓰의 비평에 대한 반박임을 고려해 보면, 오가이가 말하는 ‘정(情)’은 근대적 사랑과 대비되는 전근대적인 사랑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도요타로가 모르는 ‘진정한 사랑’이란 근대적 개념의 사랑인 것이다.

사에키 준코(佐伯順子)는, “메이지 초기의 ‘사랑(愛)’과 ‘연애(恋愛)’라는 단어가 영어 “러브(love)”의 번역어임을 지적하고, 그것을 ‘색(色)’이나 ‘정

38) 「『舞姫』の意匠は恋愛と功名と両立せざる人生の境遇にして、此境遇に処せしむるに小心なる臆病なる慈悲心ある一勇氣なく獨立心に乏しき一個の人物を以つてし、以て此の地位と彼の境遇との關係を發揮したるものなり。……抑も太田なるものは恋愛と功名と両立せざる場合に際して断然恋愛を捨て功名を採るの勇氣あるものなるや。曰く否な。彼は小心的臆病的の人物なり。彼の性質は寧ろ謹直慈悲の傾向あり。……今本篇の主人公太田なるものは可憐の舞姫と恩愛の情緒を断てり。無辜の舞姫に残忍苛刻を加へたり。彼を玩弄し彼を狂亂せしめ、終に彼をして精神的に殺したり。……即ちエリスを棄てて帰東するの一事は人物と境遇と行為との關係支離滅裂なるものと謂はざる可からず。」石橋忍月(氣取半之丞)『舞姫』『國民之友』72号, 1890.2.3.

39) 森鷗外(相沢謙吉)「氣取半之丞に与ふる書」『しがらみ草紙』7号 1890.4.25.

(情)’이라는 표현과 이질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즉, 새로운 문명개화의 ‘사랑’의 개념의 특징을 예전의 ‘색’과 구분하여 ‘색(色)’은 일대다(一対多) 혹은 다대다(多対多), 육체관계의 긍정, 혼외, 비일상적인 것으로, ‘사랑’은 일대일, 육체관계의 배제인 동시에 정신적 관계의 찬미, 혼내, 일상생활로 정리하였다.”⁴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회』의 도요타로는 ‘사랑’보다는 미혼의 상황, 즉 혼외의 육체관계를 포함하는 ‘색’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이자와의 ‘사람을 알고서의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일종의 타성에서 생긴 교제’라는 대목에서 도요타로의 사랑을 ‘색’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닌게쓰와의 논쟁에서 아이자와라는 필명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서, 오가이가 말하는 ‘정’에는 ‘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근대적 개념의 ‘사랑’은 오가이가 갖고 있는 전통적이고, 풍류적인 연애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오가이가 독일유학 전에 쌓았던 문학적 소양은 인정본과 중국의 정사류⁴¹⁾가 그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인정본적 연애관이 오가이의 문학적 교양의 토양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 전통문학의 연애관이 오가이에게도 영향을 미쳐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서양풍의 적극적인 연애관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근대적 개념의 ‘사랑’을 추구했던 엘리스와 전근대적인 ‘사랑’을 추구했던 도요타로의 사랑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고, 『무회』는 비극적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메이지 20년대라는 당시 시대상황은 남녀가 서로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사랑을 나누고 주위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당시의 일본은 오랜 쇠국상태에서 벗어나 서구열강을 쫓아 근대화를 이룩하기에 급급하였던 시대였다. 즉,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공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써 국가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추구는 막상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굴복되었다. 아직은 근대적 휴머니즘이 자리 잡기에는 봉건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던 시대였던 것이다.

오가이는 그의 가문과 그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요청을 고려해 일본으

40) 佐伯順子 『恋愛の起源』日本経済新聞社, 2000 pp.223-224.

41) 남녀의 애정에 관한 일을 기술한 소설만을 따로 모아 시대별로 구분한 것이다.

로 돌아오지만, 일본의 현실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그의 지식으로써 국가적인 활동과, 엘리제와의 사랑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일본의 현실은 그의 진실한 사랑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진정한 나’로 살기에 또한 엘리제와의 사랑을 관철시키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가이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체념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무희』는, 개인의 자유가 현실에서 처절하게 굴복되는 비애를 맞본 메이지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청년독자들에게 오히려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한없는 동정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도요타로를 중심으로 엘리스와의 사랑을 살펴보았다.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만남은 우연한 기회에 도요타로가 곤경에 처해있는 엘리스를 도와주면서 연민의 정으로 시작되어 사제관계로 이어졌으며, 도요타로의 일신상의 문제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도요타로는 엘리스와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에 전력투구하지 못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다. 항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확실하게 엘리스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거나 하는 등 자기변명이나 자기합리화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도요타로의 이런 사랑의 태도는 임신출세를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은 광녀(狂女)가 된 엘리스를 남겨두고 비겁하게 일본으로 귀국한다. 이와 같이 도요타로는 엘리스에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애절하고 진실된 사랑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4)모성애

그러면 엘리스는 도요타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기에서는 엘리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엘리스는 가난한 무용수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도요타로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그 일을 계기로 그와 사랑하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은 도요타로의 배신으로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미쳐버리고 마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다.

かはゆき独り子を出し遣る母もかくは心を用ゐじ。大臣にまみえもやせんと思へばならん、エリスは病をつとめて起ち、上襦袢も極めて白きを撰び、丁寧にしまひ置きし「ゲエロツク」といふ二列ぼたんの服を出して着せ、襟飾りさへ余が為めに手づから結びつ。
(『森鷗外全集1』 p.10)

사랑하는 외아들을 외출시키는 어머니도 이렇게는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을 배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엘리스는 아픈데도 간신히 일어나 와이셔츠도 더 없이 흰 것을 고르고, 정성껏 챙겨 두었던 ‘프록코트’ 라는 더블 버튼의 양복을 꺼내어 입히고, 넥타이까지도 나를 위해 직접 매주었다.

위의 인용문은 도요타로가 아мага타 백작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엘리스는 도요타로를 위해 몸이 아픈데도 간신히 일어나서 그의 외출준비를 정성스럽게 돕는다. 여기서 그녀가 도요타로를 자기의 분신처럼 아끼며 열정적으로, 또한 헌신적으로 모성애적 사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그녀의 열정적인 사랑은 도요타로가 아мага타 백작을 따라 러시아로 여행을 갔을 때 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否、君を思ふ心の深き底をば今ぞ知りぬる。君は故里に頼もしき族なしとのたまへば、此地に善き世渡のたつきあらば、留り玉はぬことやはある。又我愛もて繋ぎ留めでは止まじ。それもかなはで東に還り玉はんとならば、親と共に往かんは易けれど、か程に多き路用を何処よりか得ん。怎なる業をなしても此地に留りて、君が世に出で玉はん日をこそ待ためと常には思ひしが、(中略) わが東に往かん日には、ステツチンわたりの農家に、遠き縁者あるに、身を寄せんとぞいふなる。書きおくり玉ひし如く、大臣の君に重く用ゐられ玉はば、我路用の金は兎も角もなりなん。今は只管君がベルリンにかへり玉はん日を待つのみ。
(『森鷗外全集1』 p.13)

아니,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고향에 의지할 친척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좋은 생활수단이 있으면 머무르실 테지요. 또 내가 사랑으로 붙잡으면 가지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견딜 수 없어서 일본으로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은 쉽지만, 것처럼 많은 여비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곳에 머무르며 당신이 출세하실 날을 기다리겠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중략) 우리가 일본으로 가게 될 때에는 쉬레튼 근처의 농가에 살고 있는 먼 친척에게 몸을 의지하겠다고 말했어요. 써 보내신 것처럼 대신이 당신을 중용하고 계시다면 내 여비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당신이 베를린으로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이예요.

엘리스는 자신의 처지의 불안을 느끼며 도요타로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안(案)을 제시한다. 첫째는 그녀와 함께 독일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안이다. 두 번째는 도요타로를 일본에 먼저 보내고 출세할 날을 기다리며, 그가 자신을 부르는 것, 세 번째는 도요타로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이다. 이중에 엘리스는 세 번째 안을 택하며 자신의 사랑을 위해 어머니마저 두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적인 사랑은 도요타로에게 배신당한다. 이로 인해 삶과 사랑에 있어 강인한 자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녀는 지금껏 믿어왔던 믿음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좌절에서 오는 충격으로 아이의 기저귀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미쳐간다. 이는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엘리스가 자신의 그 강렬한 여성의 모성애적인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Ⅲ. 결론

오가이의 『무희』는 근대 일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오가이는 자전적인 성격의 작품을 많이 집필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문단 처녀작으로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무희』에서 두 주인공,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작품분석에 앞서 오가이의 삶과 문학을 그의 생애와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오가이는 어린 시절부터 입신출세의 가치관속에서 성장하였고, 평생을 군인과 문인이라는 두 개의 직업을 병행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무희』의 창작배경을 오가이의 독일유학체험과 엘리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가이는 군의(軍醫) 출신으로 약 4년간 독일에 유학하면서, 일본에서 맛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대학 생활과 문학서들을 탐독하고, 예술 문화를 향유하면서 선진 유럽의 근대 사상을 섭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근대적 자아를 자각했고 이는 작품 속에서 도요타로의 자아각성 과정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가이를 따라 독일여성이 일본으로 건너온 일명 엘리제 사건이 발생하고, 오가이는 이 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의 사랑의 태도에 있어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요타로의 엘리스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불우한 상황을 동정하는 연민의 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랑의 감정이 ‘사랑’ 그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표출되어 왔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자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자신의 판단과 의지보다는 친구의 탓 혹은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등 자기변명, 자기 합리화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반해 엘리스의 도요타로에 대한 사랑은 열정적이며 헌신적이다. 곤경에 빠진 도요타로를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며 늘 진심으로 성의를 보인다. 즉 그녀의 사랑에는 진실성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대한 책임감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희』의 내용에서 보면 이국에서의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관명(官命)에 대한 반항, 부모가 계시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 포기 등은 그 당시 메이지(明治) 일본의 정신구조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받아들여 포용하기 힘든 시대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시작된 사랑도 사비 유학생의 고발로 결국 면직이 되고 생활에 궁핍해지면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 엘리스와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의 입신출세(立身出世)를 위해서 귀국의 길을 택하면서도 친구 아이자와의 탓으로 돌리는 점을 보면, 자기 합리화로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도요타로와 엘리스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요타로가 진정한 근대적 자아 각성이 되지 않은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요타로는 엘리스와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입신출세를 위해서 임신한 엘리스를 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의 자각도 없이 비정하게 아마카타백작을 따라 일본으로 귀국해 버리는 윤리부재(倫理不在)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도요타로의 우유부단한 전근대적인 사랑을, 엘리스는 근대적인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고, 『무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텍스트】

森鷗外 『森鷗外全集1』 筑摩書房、1980

모리 오가이 (손순옥 옮김) 『무희』 시사일본어사, 1993

1. 한국문헌

【단행본】

이기섭 『모리 오가이의 삶과 문학』 시간의 물레, 2008

【잡지·간행물】

권태민 「森鷗外の 『무희』 고찰」 『일본문화학보』 제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1997

_____ 「森鷗外の 自我意識 考-初期 三部作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2002

이기섭 「森鷗外のドイツ留学について」 『일본어문학』 제3집, 일본어학회, 1997

2. 일본문헌

【단행본】

磯貝英夫 『鑑賞 日本現代文学 第1卷 森鷗外』 角川書店, 1981

小金井喜美子 『森鷗外の系族』 大岡山書店, 1943

佐藤春夫 「森鷗外のロマンティシズム」 『森鷗外研究』 筑摩書房, 1958

佐伯順子 『恋愛の起源』 日本經濟新聞社, 2000

渋川驍 『森鷗外、作家と作品』 筑摩書房, 1985

竹盛天雄 「森鷗外 『舞姫』 -モチーフと形像-」 『日本文学研究資料新集13』, 有精堂, 1991

中村ちよ 「ドイツ時代の鷗外の読書調査-資料研究-」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森鷗外 I』 有精堂, 1971

福田清人 『人と作品(11)森鷗外』 清水書院, 1992

山崎一穎 『spirit 森鷗外 作家と作品』 有精堂, 1985

山崎国紀 『森鷗外-基礎的論究』 八木書店, 1989

【잡지·간행물】

今村孝 「『舞姫』 雑考」 『The Humanities』 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76

金山重秀 成田俊隆 「來日したエリーゼの照明」 『国文学 解釈と鑑賞』 1981.8

桑原 美代子 「森鷗外 『舞姫』 論」 『学海』 1991

十川信介 「豊太郎の憂鬱—うしろめたさについて—」 『文学』 岩波書店, 1971.11

【사전】

日本近代文学館 『日本近代文学大事典 第三卷』 講談社, 1977



<Abstract>

Discussion of Mori Ogai(森鷗外)'s 『MuHee(舞姫)』

- As Toyotaro and Alice's love around -

Yun Sung-suk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ung-bong

The topic of this thesis is on the protagonists' Toyotaro and Alice's contemplation on love in Mori Ogai's debut novel "MuHee."

Oguy was the first-born son in a family that consisted of warriors and spent his childhood in a strict atmosphere, where success was viewed as the greatest value. As a solider, he advanced to a high status, and even in his life as a solider, he still worked actively as in the literary arts a critic, translator, novelist, and poet.

"MuHee" is a novel that represents the modern Japanese romanticism and drew the love and despair of the young man Toyotaro and German girl Alice, who lived in the Meiji Dynasty.

This novel is based on Ogai's own experience studying abroad in Germany and the true Elysee case. Ogai studied in Germany as a medic, and this experience had a great impact on his literary activities. After Ogai returned to Japan after his studies, he was put in a difficult position by a German woman, who goes by the name of Alice in the novel, that followed

him to Japan, and caused the Elysee case.

The protagonists Toyotaro and Alice have a contrasting view on love. Toyotaro's love for Alice started from the sympathy that he felt for Alice, who lived in poverty. The emotions of love was not expressed as 'love' in itself, but in the 'external factors.' Toyotaro did not feel the obligations to take responsibility in his actions and left Alice to return to Japan. In other words, he did not love in a way that broke principles, he did not truly love. Alice, on the other hand, loved Toyotaro in a passionate and devoted motherly love. In other words, her love was true love that made you feel hi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arnestness.

In this way, they strove for a different type of love, which made their love disjointed from one another and caused the tragic ending.